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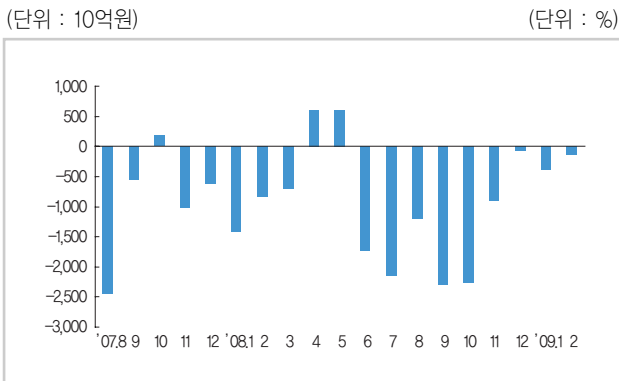
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입 요인 점검

林 亨 俊 (研究委員, 3705-6389)

달러기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및 헤지펀드 자금이 급감하고, 외국인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순유출 가능성은 낮음. 반면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주가수준과 정부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대규모 순유입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. 이에 따라 금년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입 규모는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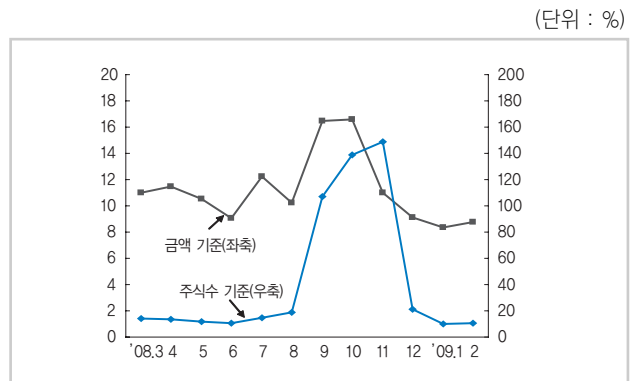
- 2008년에 달러로 표시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과 헤지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데다 외국인 투자자 중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2009년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.
 - 2008년중 외국인 보유주식수가 감소(-15%)하고 주가지수가 하락(-40%)한 가운데 환율이 상승(319원)함에 따라 달러로 표시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규모는 급격히 감소함.
 - 여타 신흥시장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외국인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4월 6일 현재 28.2%까지 축소된 만큼 추가 유출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됨.

〈그림 1〉 헤지펀드¹⁾ 주식투자자금 순유입²⁾ 추이



주 : 1) 버진아일랜드, 버뮤다, 룩셈부르크, 케이만아일랜드 투자자 기준
2) 순유입(+), 순유출(-)
자료 : 금융감독원

〈그림 2〉 외국인의 주식매매회전율¹⁾



주 : 1) 기간중 외국인 [매수금액(주식수)+매도 금액(주식수)]/[전월말 보유시가총액(주식수)+금월말 보유시가총액(주식수)]
자료 :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

